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abe94cb00d1fe555f4b030ae6d99613e9df5e063ec85e745718d412baaf2ef52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할 필요
 - 미국 지역 연은 보고서(베이지북), 7~8월 경제성장은 델타 변이 영향 등으로 둔화
 - 미국 재무장관, 연방정부는 10월에 현금 고갈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 7월 JOLTS 구인광고건수, 1093만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둔화 우려와 테이퍼링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여름 기간 경기회복이 약화되었다는 연준 조사 등이 반영
유로 Stoxx 600 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 경계감 등으로 1.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매수 증가로 2주일래 최고 수준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테이퍼링 경로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 등이 배경
독일은 ECB 테이퍼링 우려와 공급물량 우려 완화가 상충하며 보합

※ 원/달러 1M NDF환율(1167.6원, +0.3원) 보합, 한국 CDS 보합

		9/8일	9/7일	전일대비			9/8일	9/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14.1	4,520.0	-0.13%	국채 금리 10y	미국	1.34%	1.37%	-3bp
	유럽	467.87	472.87	-1.06%		독일	-0.32%	-0.32%	0bp
	중국	3,675.2	3,676.6	-0.04%	CDS 5y	한국	18bp	18bp	0bp
	일본	30,181	29,916	0.89%		중국	33bp	33bp	0bp
	한국	3,163.0	3,187.4	-0.77%	위험 지표	EMBI+	-	346	-
환율	달러지수	92.71	92.51	0.22%		VIX	17.96	18.14	-0.99%
	유로화	1.1816	1.1840	-0.20%		WTI유	69.30	68.35	1.39%
	엔화	110.25	110.28	0.03%	원자재	구리	423.1	427.8	-1.09%
	위안화	6.4617	6.4667	0.08%		금	1,789.3	1,794.4	-0.28%
	원화	1,166.7	1,157.8	-0.76%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할 필요

-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예상대로 경제회복이 진행된다면 연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 다만 그 동안 고용부문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첨언
-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금년 테이퍼링 시행과 내년 상반기 중 종료가 빅픽처라고 제시. 8월 고용통계가 부진했지만 월별 데이터의 등락보다는 금년 월평균 50만건 이상의 고용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을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
- 또한 연말까지 실업률이 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극단적인 통화완화에 의한 주택가격 버블 조짐 또한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지역 연은 보고서(베이지북), 7~8월 경제성장은 델타 변이 영향 등으로 둔화

- 대부분의 지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보건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동, 외식, 관광 등의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 다수의 기업은 단기 경제전망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부족에 대한 우려도 지속
- 노동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식당 및 소매점포부터 제조업체와 건설업체까지, 많은 기업에게 직원 채용과 유지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

■ 미국 재무장관, 연방정부는 10월에 현금 고갈에 직면할 가능성

-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상한을 확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여 경제와 금융시장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만일 의회가 마지막 순간에 부채상한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기업 및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단기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미국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 미국 7월 JOLTS 구인광고건수, 1093만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 노동부, 이번 결과는 예상치(1000만건) 상회.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8월의 고용둔화가 일자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진단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 홀츠먼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세계적인 공급차질, 노동력 부족, 소비지출의 증가 등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

■ 영란은행 총재, 경기회복 둔화 징후 존재. 강한 물가상승의 장기 지속은 어려울 전망

- 베일리 총재는 일부 경제지표가 경기회복 둔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 또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공급차질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 이달 말 일자리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기업의 직원 채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일보, 정부의 규제강화는 산업발전의 건전성 확보가 목적

- 최근 당국의 규제강화에도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 개혁은 근본적으로 민간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도 시장개방 및 외국 자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

■ 일본 2/4분기 성장률(확정치), 전기비 0.5%로 속보치(0.3%)에서 상향

- 내각부, 연율 환산으로도 1.9%를 나타내 속보치(1.3%)보다 높은 수준. 양호한 설비투자(2.3%)와 개인소비(0.9%)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 다만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회복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약한 것으로 평가

■ 터키 중앙은행 총재,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둔화를 유도할 정도로 높은 수준

- 사합 카브즈오울루 총재는 4/4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근원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완화의 시도로 평가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큰 폭 하락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소비자신용잔액(전월비,억달러): 170, 6월(376.9), 예상치(250)

■ 주요 경제 이벤트(9/9 현지시각 기준)

-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및 연준 보우만 이사 강연
- 미국 9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중국 8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강세, 상대적인 성장세 등으로 본격화될 전망 - 블룸버그

(The Dollar's Rebound May Just Be Getting Started)

- 물가상승 압력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은 상당. 이는 환율이 절대가격이 아닌 상대가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성장 부진은 달러화 강세의 단초
- 아울러 미국의 물가 오름세는 연준이 자산매입을 빠른 시간 내 중단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 게다가 달러화 공급원이었던 재무부의 연준 예치금 운영도 중단될 예정. 강달러 기조 전환으로 신흥국 외환시장에 부정적 여파는 불가피

■ 해외자본의 중국 주식 투자, 중국 정부 성향 고려 시 여전히 부정적 - Financial Times

(Is China uninvestable?)

- 최근 몇 달 동안의 중국 주가 급락은 기술, 교육, 부동산, 게임 등의 분야에 대한 당국의 규제와 공동 번영 성명 등에 기인. 이에 중국의 유명 논평가 Li Guangman은 중국이 자본집단에서 인민대중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
- 옥스퍼드 대학의 George Magnus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나 기업에 관심이 없고, 이들로 인한 중국 내부의 피해 제어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다음 예상되는 규제는 부동산, 헬스케어,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부연
- 중국 소재 EU 상공회의소의 Jörg Wuttke는 공산당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외국 기업에 관심을 표출하며, 변동성 회피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 이에 중국 투자는 가능하지만, 저가 메리트 관점은 시기상조라고 평가

■ 미국의 소비자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 완화 등의 잠재적 편익 상존 - 블룸버그

(How Weaker Consumer Demand Could Help the U.S. Economy)

■ ECB, 정크본드 실질금리의 (-)전환 감안 시 테이퍼링 논의 개시 필요 - Financial Times

(It is time for the ECB to talk about taperin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